

觀賞鳥類 飼育方法



방 예 식

〈한국관상조류연구원 원장〉

- 최근 관상조류 사육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취미와 레저 ○
- 부업으로 각광을 받을뿐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생 ○
- 활의 정서교육으로 그 사육인구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 ○
- 는 실정에 있다. 본 월간 양계가 앞으로 시리즈로 게재 ○
- 할 관상조류 연구원 방예식원장이 관상 조류사육을 하고 ○
- 있는 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가장 사실대로의 이 ○
- 론 및 실재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독자들의 많은 도움 ○
- 이 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

1. 머릿말

관상조류사육이 취미와 레저부업으로서 각광을 받아 그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도시의 자가지 공해로 인한, 피해에서 대 자연의 생동과 음향을 그리워하는 인간본능의 발로라하겠다. 인간의 취미세계에는 미술, 음악, 사진, 생화, 영화, 낚시, 골프등 다양한 분야가 있겠으나 나는 그 중에서도 조류사육이 그 어느 것보다 심오(深奧)한 맛이 곁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조류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보느라하면 생명의 조화와 산의 미묘한 작위에 스스로 감탄의 눈을 번쩍이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곳에는 미술과 음악과 생명의 약동이 곁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관상 조류를 사육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째다. 취미삼아 애완용소조류로 시작하여 관상용대형조류(觀賞用大型鳥類)로 발전시킨 것이 이외에도 큰수입도 생기게되고 자녀들의 정서 교육에도 이바지가 클뿐 아니라 가정주부들의 유일한 반려자도 되고 더욱이 아름다운 정원미화(庭園美化)에 동적조화(動的調和)를 수놓아 주는 장관은 가히 가관이여서 그 향취를 만끽한 나머지 소득증대의 레저부업으로 질실함을 느껴 많은 친구들과 애호가에게 관상조 기르기를 꾸준히 권장하여왔다. 10년이 흐르는동안 사육애호가 전국 여러곳에 미치게 되어 애조가 상호간의 친목

도 도모하고 획기적인 소득목표를 달성함에 이바지하고자 친목연구 단체로 한국관상조류연구원(韓國觀賞鳥類研究院) (서울 中區 獎忠洞 2가 自由센터201호 電話 (53) 4037)을 74년 6월에 창설해 놓았다. 그 창설의 취지는 첫째로 적은 면적에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간단한 사육방법에 의하여 기대외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가정 부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 나머지 이를 권장코자 함이고 둘째로 사육비가 적게들고 정서생활을 결들인 취미 사업에다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 의회확득까지 할 수 있고 셋째로 봄을타고 일어난 일련의 부작용으로 일부상인들이 종조를 구입할 때 순종혈통의 선택을 잘못하여 잡종이 많이 생겼으므로 잡종들을 가려 도태시키고 순종으로 개량증산하여 수출에 대비하고 초심자에게 종조의 순종분양 알선과 사육관리 부화육추기술 위생방역관리등 사조기술을 지도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2. 사육현황(飼育現況)

애완용(愛玩用) 소동물(십자매, 잉꼬, 백문조, 카나리아등)과 구분하여 (관상조류는) 경과에 속하는 것으로 크기는 공작에서 부터 적게는 메추리에까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류는 불과 30여종에 불과하다. 본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한 사육자가 대략 700명내외

로 추산하는 바 그중 본원에 가입등록된 회원이 300여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육실태를 조사한 바 그 사육 품종과 보유수량 그리고 연

구원에서 제정 알선하는 종조분양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연구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함)

사 육 실태 표				종 금 분 양 협 정 가 격 표			
				분 양 가 격			
No	품 종 명 칭	사 육 자 수	조 류 수	세 끼		어 미	
				3 개 월	8 개 월	1 ~ 2 년	2 년 이상
1	금 계	70	1,625	12,000	20,000	30,000	40,000
2	은 계	41	348	80,000	100,000	100,000	200,000
3	황 금 계	20	198	70,000	90,000	150,000	180,000
4	백 한	48	253	20,000	30,000	40,000	50,000
5	청 공 작	35	236	50,000	80,000	150,000	20,000
6	백 공 작	10	31	80,000	100,000	180,000	240,000
7	진 공 작	3	8	150,000	180,000	300,000	350,000
8	산 계	8	68	60,000	80,000	100,000	130,000
9	당 산 계	1	3	80,000	100,000	180,000	250,000
10	화 계	3	6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1	호 로 조	10	256	2,000	3,000	6,000	10,000
12	백 평	7	54	20,000	30,000	40,000	60,000
13	일 본 평	6	94	5,000	10,000	20,000	30,000
14	한 국 평	25	3,800	2,000	5,000	10,000	20,000
15	원 양	15	215	60,000	80,000	100,000	150,000
16	긴 꼬 리 평	5	8	40,000	60,000	70,000	100,000
17	공 작 비 들 기	13	200	3,000	5,000	8,000	15,000

3. 사육방법과 요령 (飼育方法과 要領)

종금(種禽)선택의 요결

종조를 선택할 때에는 순수 혈통을 가진 순종을 택할 것과 근친이 아닌 원친 계통과 다산계이며 건강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요결이다.

(1) 혈통 : 혈통을 존중하는 어머니는 순수번식에 의한 유전성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서다. 가축품종에는 혈통증명서란 공인증이 있어서 가축선택상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자료가 되어져 있다. 그러나 평과에 속하는 관상조류에는 혈통서가 없어서 부득히 신뢰성있는 번식장을 믿거나 장기간을 두고 시찰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원이 창설된 이래 조류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류심사위(審査委)에서 회원의 사육장을 일일히 방문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순종과 잡종을 판

정분별하여 순종에는 합격증(고유번호가 든 링)을 끼워 혈통을 입증하여 사육자에게 종조로 분양알선케하고 잡종은 가혹하게 도태하기로 하였음으로 앞으로 품종개량이 크게 기대된다. 대체로 관상조류의 혈통을 조사하는 이유는 대별하여 두가지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 순종인가 잡종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원의 심사결과 상당수의 잡종번식이 확인되었다. 순종과 잡종의 차별대우는 사조계에서 하늘과 땅사이 같이 심하게 다루고 있으니 종조선택시는 높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순종권내에 든다 할지라도 근친교배(近親交配)인가 원친(遠親)의 후손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된 근친교배의 후손은 체질이 약하고 기형조가 많으며 병에 들기 쉽고 번식력도 약하다. 둘째로 습성과 번식력의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번식력이 우수한 혈통의 새들은 부

모의 혈통을 닮는 수가 있고 선천적 성질이 양순의 여부도 영향이 있다. 이들은 성장 발육환경사료 습성 교배등의 양부(良否)에 따라 번식력 즉 산란 수정 부화의 성적 차이가 있으나 혈통이 영향도 크다. 혈통에 의하여 산란율은 한쌍당 평균 10개 정도의 차이가 허다하며 또 습성이나 성질의 양순 여부가 번식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금가족에 비하여 월통의 높은 율을 가지므로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뿐 아니라 체형 깃털색 자태등의 우위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종조선택시는 혈통에 대하여 깊은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2) 금사(禽舍)

금사에는 매소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든 간에 반로천식(半露天式)이 바람직하다 가끔 눈비를 피할 정도의 1m현방의 지붕을 가진 것이 발견되지만 새를 위해서는 크게 고욕이 된다. 금사의 넓이는 금계 은계 벽한정도의 크기에는 2m×3m×2m로 면적이 1.5평 정도면 가정에 적당하다. 그 절반 정도에 지붕을 덮어 겨울은 북풍의 방향에만 약간 가리워주면 된다. 공작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2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높이도 3m 정도가 필요하다. 가름대(앉음대)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있다. 공작이나 장미계 등을 제외하고서는 가름대가 없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다.

금사의 철망은 오분목(五分目) 정도가 적당하고 더 넓으면 참새가 들어가 모이도 없애고 병균을 전파시킬 수 있으니 고려해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상(地上) 40~50cm 정도는 부록이나 짧은 철망을 쳐서 개의 침입을 방지해야 된다. 특히 꿩종류는 그 체취가 개에 대해서는 강렬한 감을 주는 모양이다.

(3) 사료와 물통

모이통과 물통은 양계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족하고 물통은 겨울철에 얼어터지지 않는 것이면 아무것도 좋다. 산란을 시킬려면 짙단을 검검한 구석에 놓아두면 그곳에 산란한다. 대개 꿩종류는 별도로 산란장소를 절치해 주지 않아도 금사의 구석에 낳

는 법이다. 더욱 짙단 등을 세워 들배는 숨는 장소로도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수욕(水浴)을 하지 않고 사욕(砂浴)을 하기 때문에 금사의 적당한 장소에 사장(砂場)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새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사욕장으로 택한다. 아마도 사욕을 하는데 적당한 습도가 요구되기 때문인 것 같다. 금사내에 식목을 하여 주면서 더욱 좋은데 보통 광엽수(廣葉樹)가 적당하다. 새들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서늘하게 하는 것이 관리(管理)의 원칙이다.

5. 번식방법(繁殖方法)

1. 사 료

사료는 잡곡이면 무엇이든 먹기 때문에 닭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양계용 배합사료를 그대로 주어도 된다. 주식은 옥수수 와 밀을 주로하고 그것에 어분과 패분을 가할 정도면 된다. 그때 배합은 옥수수와 밀을 반반으로 섞고 10% 정도의 어분과 5% 이하의 패분을 섞으면 된다.

보조사료(補助飼料)로는 추운 계절과 털갈이 시기에 약간 강한 것을 주지만 그때 삼찌나 어분을 강하게 하는 정도다. 발정기를 맞기전에는 먼저 체력을 충실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사료를 주고 산란기가 박두하면 발정사료를 주기 시작한다. 그것에는 동물성의 것을 많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뚜기 말린 것이나 찌꺼란, 황란(黃卵)을 밀 한홉에 한개 정도를 섞어 말린 것을 준다. 이때 삼찌를 많이 주면 지방과다가 되기 때문에 주식의 20% 한도로 하는 것이 좋다. 보건사료(保健飼料)로서는 청채류(靑菜類)를 좋아하며 광물사료(鑛物飼料)로서는 패분외에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적은돌 또는 모래가 필요하며 용기에 담아 주든가 굵나내에 퍼주면 좋다.

(2) 산란(產卵)

꿩과(鶩科)의 번식의 특징으로서는 많은 유정란을 얻기 위해서는 수 한마리에 암 두세마리를 짝채우는 것이 좋다. 한쌍만 넣었을 경우에는 숫놈이 발정이 강하기 때문에 암놈이

지쳐서 죽는 수가 있다. 반면에 암이 너무 많으면 부정란이 나오는 수가 많다. 숫놈의 발정은 3월경이면 시작하지만 암놈은 좀 늦기 때문에 수는 암을 쫓아다니는 회수가 점점 많아져 암컷의 두부가 쪼여서 탈모가 되어 총렬하는 수가 있다. 이런 때는 암컷은 옆칸에 두워서 상합(相合)시켜 놓으면 도리어 암이 발정이와서 숫놈에 가까히 하고자 한다. 그때에 동거시키면 교미에 성공하게 된다. 때문에 더욱이 숨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산란은 4~6월에 행하는 것이 많다. 산란하면 될수록 빨리 채란하지 않으면 그것을 쪼아먹는 놈이 생겨 도리어 식란벽이 생기게 된다. 채란한 알은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한다. 이 종류들은 보충산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다음으로 산란해 낳는 경우는 50개 이상을 낳고 기라는 보통 25개 정도고 너무 노조(老鳥)가 되면 그보다 적어진다.

산란한 알은 가모에 맞기거나 부화기에 발육시킨다. 가모의 경우는 닭, 장닭등 목은 것으로 경험이 있는 놈에게 맡긴다. 닭종류에는 오골계(烏骨鷄)가 가모로서는 최상급이다. 장닭은 7~10 오골계는 10~15정도를 맡기면 성적이 좋다. 부화기를 사용할 때는 대량육추를 할때인데 38~40°C로 습도 70~80%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닭부화용을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50란 정도의 소형도 시판돼 있기 때문에 가정

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화기를 구할때는 온도와 습도(濕度)의 조절이 좋은 것과 공기 유통이 양호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기의 유통이 좋지 않으면 중지란(中止卵)과 사룡란(死籠卵)이 많이 나온다. 특히 소형의 경우에 결점이 많다. 평면식으로 3×6~2.5尺 정도가 이상적이다.

(3) 육추방법

평과에는 21~23일째와 27~28일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가모의 경우는 부화된 다음 그대로 맡겨도 좋지만 가모기(假母器)의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5센치 정도로 짧은 짚을 깔고 모이를 그위에 뿌려주면 그것을 발로써서 모이를 찾기 때문에 운동에 좋다. 그때의 사료로는 닭과 매한가지로 전계란의 황란을 깨서 신문지 위에 뿌려준다. 그전에 목탄미(木炭米)를 먹여 체내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흡수시킨 다음 사료를 주는 수도 있다. 어느 종류든간에 생후 48~60시간은 사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새끼가 모이를 먹고 싶어할 때를 엿보아 주면된다. 너무 빨리 주어도 안좋다. 그 이후에는 닭의 초생추용 배합사료와 물을 주고 하루 12회 청채를 잘게 썰어 준다. 될수록 생사료를 주는 것이 닭병아리와 다른 점이다. <다음호에 계속>



※ 74년말현재 가축 마리수(농수산부)

한 우	1,777,711두
육 우	7,449두
유 우	73,195두
돼 지	1,818,338두
닭	18,814,204수
사슴	2,817두
토끼	848,394수